

‘차문화’와 ‘중흥조’에 가려진 조선 후기 철학·문학의 산실

이윤선의 [남도 인문학]

초의의 옛터에서

“멀리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 만에/
회어진 머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왔네
/ 새 터의 마을은 풀에 묻혀 집은 간데
없고/ 옛 묘는 이끼만 끼어 발자국마다
수심에 차네/ 마음은 죽었는데/ 한은
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는가/ 피가 말
라 눈물조차 흐르지 않네/ 이 외로운 중
(僧) 다시 구름 따라 떠나노니/ 아서
라, 수구(首丘)한다는 말 부끄럽구나”

초의선사가 58세(1834년)에 고향을
찾아와 읊은 노래다. 대선사이니 속세
와는 인연을 끊고 정진해 불도를 이뤘을
듯싶지만, 고향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
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일까. 여
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제 살던 굴 쪽으
로 둔다는 수구초심(首丘初心)이라는
말이 왜 나왔겠는가. 수구하는 마음이
야 범부나 대승을 가리지 않을 것이니
풀에 묻혀 사라진 고향에서 피가 말라
눈물조차 흐르지 않는다고 노래한 저의
의 심정을 헤아려볼 뿐이다. 초의가 이
순에 이르러서야 찾았던 고향마을은 지
금의 무안군 삼향읍 왕산마을이다. 십
여년 전 내 삶의 마지막 오두막을 그의
생가담벼락에 기대어 짓고 나서부터
상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. 내 일찍이
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곳으로 그이를
사숙(私淑)하는 터를 잡았는지, 새록새
록 사무치는 것은 근대기 한국 사상의
한 줄기를 이뤘던 초의의 마음자리다.
논자들은 대개 추사와 다산을 들어 한국
의 정신을 말하지만, 나는 차문화의 중
흥조라는 호명에 가려진 초의의 정신세

계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
는 중이다. 백파와 초의의 선논쟁 등 불
교적 논쟁을 넘어서고 차문화의 요모조
모를 넘어서는 얘기다. 차차 풀어나갈
기회가 있을 것이다.

2018년 1월12일자 본지 지면을 통해
초의를 소개한 바 있다. 초의 의순과 다
소(茶所)가 있던 나주 운흥사의 인연을
설명한 바 있다. 당시 소개한 자료들을
몇 개 가져와 이야기를 덧붙여 둔다. 의
순(草衣 意恂, 1786~1866)이 입산을
한 것은 여섯 살 때로 알려져 있다. 정식
으로 출가한 것은 운흥사 벽보민성(壁
峰敏性)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으면서
부터다. 이때의 나이가 열다섯이다. 초
의 생가와 기념관을 짓고 현양 사업을
펼친 용운 스님에 의하면 초의가 다섯
살 때 강가에서 놀다가 깊은 곳에 빠졌
는데 건져 준 스님이 있었다 한다. 그가
누구인지는 모르지만, 심정전의 심학규
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
그 삶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
까 싶다. 이후 열아홉 되던 해에 영암의
월출산에 올라가 깨달음을 얻었다 한
다. 이종찬이 옮긴 ‘초의시고’ (동국역
경원)에 보면 이때의 풍경을 간략하게
소개하고 있다. 열아홉(1804)이 되는
해에 영암 월출산에 혼자 올라 산세가
기이하고 아름다워 시간 가는 줄 모르
고 취해 있던 중 남해 바다에서 떠오르
는 달을 보고 깨친 바 있어 가슴에 맺힌
것이 시원하게 풀렸다는 것이다. 이후
가는 곳마다 막히거나 꺼릴 것이 없었
다니 아마 돈오돈수(頓悟頓修)의 깨달
음을 이때 얻었던 듯싶다. 돈오와 돈수
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닫고 완성한다
는 뜻으로 선불교 수련의 핵심이기도
하다.

초의가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던 고향

왕산마을은 용운스님에 의해 발굴되고
비정됐다. 동국대 출판 ‘초의선백전’에
보면 나주 삼양(삼향)에서 태어나 신기
(新基)에서 살았다. 신기마을을 특정할
수 없었으나 왕산마을에 전해오는 백발
노인 이야기라든지 조선시대 관할구
역, 장씨 세족 마을(본명 장의순) 등을
추적해 정한 것이라고 한다. 삼향지역
은 군산봉수가 있는 곳으로 본래는 나
주 관할이었다. 물길을 따라 행정구역
이 정해지는 전통 때문이다. 출가한 지
3년째 당시 나주 운흥사 관음전에서 수
행하던 완호스님을 만나 인연이 됐다.
다시 대흥사에서 완호스님에게 구족계
를 받고 초의라는 법명을 받게 됐다. 본
래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던 모양
이다. 대흥사를 중심으로 교우하게 되
는 이른바 조선 후기의 문장가들, 화가
들과 연결되면서 그의 재능이 더욱 빛
을 발하게 됐던 것이다. 지금 대흥사 유
물관에 보관돼 있는 ‘사십이수십일면관
세음보살상’과 ‘준제보살상’이 초의의
그림이다. 이외 단정 솜씨도 뛰어나서
대광명전과 보련각 등의 단정을 손수
했다. 다선일미 등 차문화 관련으로 널
리 알려져 있는데 더욱 주목할 것은 초
의의 문학세계다. 다산 정약용 등과 넓
게 교우하며 유학과 불학은 물론 조선
후기 한국의 철학과 문학을 더욱 풍성
하게 꾸린 사람이기 때문이다. 때때로
차문화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거
나 단편 논문을 심사할 때마다 나는 이
점을 지도하거나 평하곤 한다. 초의를
툏아보면 볼수록 예사롭지 않은 것은
그의 정신세계다. 지금 초의가 너무 차
문화 관련으로만 편중돼 연구되고 있다
는 지적이기도 하다.

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

남도인문학팁

연하가 난몰하는 옛 인연의 터

1824년인가 1825년인가 초의는
대흥사 뒤편에 일지암을 중건한
다. ‘일지암문집’이며 ‘초의시고’
며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여기서
탄생하게 된다. 그뿐인가 김노경
등 유배와 해금의 수많은 인사들과
교우하기도 하고 소치 허련이 초의
에게 서예와 그림, 시문을 습작하
는 등 조선 후기 한국의 한 마음자
리가 꾸려졌던 곳이다. 추사와의
인연이 돈독하게 성장한 곳도 일지
암이다. 소설가 한승원은 ‘조선 천
재 3부작’이라는 타이틀로 ‘초의’,
‘다산’, ‘추사’라는 소설을 각각 두
권씩 완성한 바 있다. 한승원이 왜
이 세 사람을 딱 뽑아서 다뤘을까.
언설대로 조선의 3대 천재들임에
는 분명하지만, 더 많은 사람들이
이들 세 사람을 주목한다는 점이
중요하다. 초의는 유학과 불학을
넘나들며 한국철학 담론을 더욱 웅
숭깊게 했다. 한국 근대의 여명을
열어젖힌 이들이라는 점에서 한승
원이나 여러 평자의 시선은 유효하
다. 그로부터 두 세기가 지나갈 즈
음 용운은 초의의 고향마을 무안군
왕산에 생가를 복원했다. 초의가
말년을 지냈던 일지암도 재현하고
박물관, 체험관, 금오초당 등을 마
련했다. 지리지에 나오는 군산봉수
가 생가 뒤편 산이다. 가끔 이곳에
오르면 초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
월출산이 동남쪽으로 장엄하게 펼쳐
진다. 남으로는 유달산 북으로는
송달산 서쪽으로는 수달장군 능창
이 신출귀몰 날아다녔다는 송공산
이며 왕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
산이 다도해를 배경으로 펼쳐진
다. 이순에 이른 초의가 고향마을
을 찾아 눈물을 흘렸던 것은 아마

도 내면에 깊이 스민 남도의 풍경
때문 아니었을까? 내가 이곳 초의
생가 아랫벽에 기대 움막을 지은
까닭이 무엇일까를 늘 상고하는 까
닭이 여기 있다. 구름 따라 떠돌다
가 한 차례 고향마을에 들러 피 굵
은 눈물을 흘렸던 초의에게는 수구
초심의 장소였다. 그래서다. 나는
늘 초의가 일지암을 지으며 지은
시를 머리맡에 두고 살았는데 그
인연의 터가 대흥사 일지암을 넘어
생가에 재현된 일지암으로 이어졌
다는 상상을 하곤 한다. 안개가 어
지러이 흠날리는 날 때때로 초의
생가 뒤편 군산봉수에 오를 때마다
그의 심사가 보이는 듯하다. 초의
가 일지암에서 차와 유불선의 융합
을 미학과 철학으로 꾀했다면, 나
는 그이의 생가 머리맡에서 무엇을
꾀해야 할까. 나야 유불선에 기록
교를 더해 장차 전개될 한국 정신
사에 일조할 요량이지만, 초의가
말한 옛 인연의 터가 대흥사의 일
지암뿐만 아니라 무안의 초의생가
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나브로 알아
차리고 있는 중이다. 다시 그이의
시구를 읊조리자니 눈앞 월출산이
영산강 해무에 싸여 마치 선계를
이룬 듯하다.

연하(烟霞)가 난몰(難沒)하는
옛 인연의 터에/ 중 살림 할 만큼
몇 칸 집을 지었네/ 못을 파서 달이
비치게 하고/ 간짓대 이어 백운천
(白雲泉)을 얻었으며/ 다시 좋은
향과 약을 캐나니/ 때로 원기(圓
機)로써 묘연(妙蓮)을 꾀며/ 눈앞
을 가린 꽃가지들 잘라버리니/ 좋
은 산이 석양 노을에 저리도 많은
것을.



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
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

